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安成洙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鄭龍卜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54-2278-9 / FAX 56-2204
인쇄: 한라일보사

제523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호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5년 4월5일 수요일

1

4·3 진상규명 촉구대회 개최

제총협서...유적지 순례 등도 가져

“도민 모두가 4·3피해자이자 해결자임을 인식해야”

4·3 제47주기를 맞아 제주지역 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제총협) 및 도내 각 사회단체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합동위령제를 공동으로 갖는 등 4·3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4월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제총협 4·3진상규명 촉구대회 및 4·3유적지 순례

‘제총협 4·3진상규명 촉구대회’가 4월4일 도내 각 대학별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주전문대학은 시청에서, 한라전문대학은 터미널에서, 제주교육대학은 여상에서, 제주대학은 그외의 지역에서 제총협(임시 상임의장 이필승 제주전문대학 총학생회장)의 주최로 학우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문예행사 상임의장인사, 집단분향,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승 제총협 상임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4·3정신으로 55만 도민의 힘을 모아 감투수입에 따른 어려움을 이겨내고, 4·3진상을 반드시 규명해 내자”고 촉구했다.

또한 4월5일에는 제총협주최로 3백여명의 학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4·3유적지 중에 하나인 서귀포시 영남동 일대(폐촌마을)에 대한 역사순례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순례장소 집결 후 순례지를 소개하고 △폐촌마을 일대를 순례한 후 △단합의 시간



◇‘제주 4·3 희생자 제47주년 합동위령제’가 지난 4월3일 2천여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탐동광장에서 열렸다.

(분임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우리대학 총학생회(회장 송창윤 행정4)에서는 4월4일 오후 1시부터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제민일보에 연재기획되고 있는 ‘4·3은 말한다’의 특별취재반 일원인 김종민기자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 3월30일부터 4월5일까지 4·3추모기간으로 설정, 4월1일부터 각 단과대학 및 백두관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4월3일에는 검은리본날기운동을 벌였다.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위령제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

위령제’가 4·3희생자 위령제 봉행위원회(위원장 김병언)주최로 탐동광장에서 열렸다.

△초호(강창근 봉행위원) △국민회 △진훈회 △현화 및 분향 △경과보고(이아성 봉행위원) △위령제 봉행 취지문 낭독(오선범 봉행위원) △종교의식(축원문-불교조계종제주교구본사주지 김중원 스님, 기독교-한국기독교교조회 제주동부교회 홍성봉 목사) △주제사(위령제봉행위원회위원장 김병언) △추도사 △추도시 낭독 △헌화 및 분향 △소지 △과제 순으로 진행된 이날 위령제는 김문탁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각계 인사 1백여명, 학생, 시민, 4·3피해자 유

가족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이날 위령제에서 위령제봉행위원회 오선범 위원은 위령제봉행취지문 발표를 통해 “4·3희생자들을 위령하고, 그들은 신원되어야 하며, 제주도민 모두가 4·3의 피해자이며 해결자임을 인식하고, 도민 모두의 단결에서부터 4·3명예회복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언 위원장은 주제문 발표를 통해 “4월3일을 제주도민의 화합의 날로 정하고, 진정한 도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4·3당시의 갈등을 해소하고, 오늘날의 갈등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사학과 통폐합계획-교무처장에게 듣는다

공대·경상대·사범대 일부학과 통합예정 연구 및 교육기능 활성화위해 불가피

최근 학과통폐합문제로 학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본사에서 그 구체적인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김법국(경영학과 교수) 교무처장에게 점성사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 입안하고 있는 유사학과 통폐합 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해 대다수의 교수 및 학생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짜여져 있는가?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 다만, 지나친 학과 세분화로 교과과정의 중복 편성, 학과별 폐쇄운영에 따른 교과선택목 제약 등으로 대학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학과의 통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유사학과 판단기준 및 통폐합 기준은 무엇인가?

＝세계적 교과과정의 유사학과 통합기준이 된다. 즉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육과정을 참고할 방침이다.

▲유사학과를 통폐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로 학문영역이 점점 통합되어가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고, 학생들의 교과목선택 제



김법국 교무처장

약은 물론 세분화된 학과 졸업자의 취업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전공강의를 개설함으로써 전공과정의 충실한 심화·발전이 가능하다.

셋째, 교수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강의가 가능함으로써 질 높은 강의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대학 신입생들의 학과선택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통폐합된 학과 교수들의 강의 시수는 어떻게 되는가?

＝교수의 법정 강의시수에는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40명 정원의 3개 학과를 통합해 1개의 학부로 전체 1백20명을 선발할 경우, 1백20명을 한꺼번에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몇개로 분반해서 강의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교수의

법정 강의시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과밀강의에 대한 문제도 없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60개 학과가 있는데 몇개 학과를 줄여 몇개의 학부로 만들 생각인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공과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의 일부 학과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통합후 2~3개 학부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학과와 새로 만들어진 학부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교육법 시행령에 유사학과 통합을 통하여 대학이 연구 및 교육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에 학과 또는 그 이상의 전공분야를 통합한 학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는 여러개의 학과를 통합한 대과(大科)의 의미를 가지며, 학부를 이수한 학생은 00학부(00전공)으로 졸업하게 된다.

학과 통폐합은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한 후 3학년 때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부분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히 학과를 폐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컨대 사범대와 인문대에 있는 유사학과들은 통폐합 대상이 되지 않는가?

＝사범대와 인문대만이 아니라 단과대학과도 통합대상이 될 수 있다. (韓)

社 告

제15회 백록문학상 현상공모

■분 야

- 시 : 5편 이상
- 단편소설 : 70대 내외
- 문학평론 : 50대 내외

■시 상

- 시 : 당선작 1편 40만원
- 단편소설 : 당선작 1편 50만원
- 문학평론 : 당선작 1편 50만원

■응모마감 : 1995년 5월 20일

■제 출 처 : 대학원동(구 학생회관)3층 본사 편집국 (동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문학상응모작품’임을 명기할 것)

■응모자격 : 우리 대학교 재학생

■당선작발표 : 『제대신문』개교기념 특집호에 발표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54-2278, 2279)

제대신문사

복지문제 설문조사

학자추, 1500명 대상으로

학원자주추진위원회(위원장 강창민 농학 4)에서는 지난 3월24일부터 30일까지 1천5백여명의 학우를 대상으로 학내복지문제 및 순환버스 이용방안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내복지문제개선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은 모두 6개분야 10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복지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생활복지기금 1억2천만원의 사용방향 ▲순환버스 이용시간 조정방안 ▲숙용차 관리 타기 운동에 관한 학우들의 반응 ▲총동창회비 납부문제 등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들하르방

4·3과 도민의 실망

4·3민중항쟁이 발생하지 올해로 47주년이 됐다. 반세기 가까운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독재·군사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안으로 그 슬픔을 삭여야만 했다.

여전히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 탄압이 두려워 4·3에 관해 얘기하기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러나 근래들어 예전에 비해 4·3은 더 이상 침묵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규명을 해야만 구원을 떠돌며 안락하지 못하고 있을 무고한 영령들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진상규명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제주도의외 4·3특위와 구성돼 1만여명의 희생자 명단을 조사한 것을 비롯해 연구소와 언론기관의 재조명 작업, 40여년간 말문을 닫고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도민들이 가슴에 묻힌 아픔을 한꺼풀씩 벗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도민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움직임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난 3월31일 제주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은 92년 대선 출마 당시 제주 4·3의 명예회복과 화합차원의 위령사업을 공약했고, 이후 국무총리들도 정부의 적극지원운동을 약속했다. 93년 5월 당시 환인성 총리는 “제주 4·3사건은 지난 시대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국회사 공인된 사회단체에서 진상규명작업을 할 경우 정부에서는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94년 7월 당시 이영덕 총리 역시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해서 정부측의 입장을 거듭 확인시켰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만 정부차원의 4·3관련 움직

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도의회에서 93년 10월에 국회 4·3특위구성법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제총협에서도 1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94년에도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으로 ‘4·3특위구성안’발의가 있었지만, 현재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4·3 제47주기 직전인 지난 31일 제주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 역시 4·3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도민들을 실망시켰다.

4·3민중항쟁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그 진상규명작업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榮)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의 밤”

도민 여러분의 참여속에 21세기를 준비하는 제주대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큰 뜻과 정성을 모으기 위한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의 밤’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 동문, 학부모 및 뜻있는 각계 인사와 기관·단체 등 도민 여러분을
정중히 모시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21세기를 준비하는 저희 제주대학교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 ▶ 일 시 : 1995년 4월 14일(금) 18시30분
- ▶ 장 소 : 오리엔탈호텔 2층 연회장(제주시 탐동 소재)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는 큰 뜻과 정성은
제주대학교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제주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주대학교발전후원회 회장 이군보/제주대학교 총장 고장권

조 대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의 미래는

제주대학교가 발전할 때

밝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도민 여러분의 결집된 힘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1부 (18:30~19:30)

- 개 회
- 경과 보고
- 총장 인사
- 후원회장 인사
- 각계대표 축사
- 결의문 낭독

2부 (19:30~21:00)

- 석 식
- 축하공연
- 출연금 접수 및 발표
- 폐 회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학문공동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제주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을 길러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기획 제주현대사 연구의 오류-4.3 연구를 중심으로

경험자들의 주관적 접근·사회과학도들의 이론적 접근 등 주류 실증적인 역사학적 접근 드물어...객관적 사실 규명에 충실을

I

최근 들어 해방직후 시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를 연구한다는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한민족이 자주적으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채 마·소 점령군의 통치 아래 보낸 3년 동안에 전개되었던 제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단이 고착화되어 가는 현상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 여겨진다. 현대사를 '동시대의 역사'(contemporary history)라고 하듯이, 그 후에 전개된 역사

점이 百家爭鳴으로 제시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수많은 사실들 가운데 역사적 사실을 뽑아내는 작업은 역사가들의 주관적인 안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가능한 한 같은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 옳게 뽑았다는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만 역사적 사실로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 발전의 바른 노정에 합치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고를 수 있어야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성을 가진 역사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II

이제 위의 전제하에 4.3에 대한 기존 연구의 관점들을 검토하여 보도해 보자.

우선 4.3을 폭동 내지 반란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에 따르면 4.3은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서 제주 도당부가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미군정의 국가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반란으로서, 제주도를 적화시키기 위한 폭동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나름대로 4.3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체제는 결코 용납되지 못한다는 현재적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자의 현재적 이념 경향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그대로 반영된 해석으로 여겨진다.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제시되었던 문제는 이념의 선택이 아니라, 하루빨리 식민지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더욱 나은 삶을 보장하여 주는 온전한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도민들의 바램은 도민들의 사회경제적 공동체성에 기반을 두고 4.3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이다. 물론 4.3이 남로당 제주도당부의 주도하에 조직적 투쟁으로 전개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민 다수의 자·간접적인 동참이 없었다면 애초 가능하지도 않았으리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남로당의 지령과 선동에 의해서 4.3은 발발·전개되었고, 제주도민 다수가 빨갱이·폭도라고 보는 해석은 이 사건을 너무 편향적으로 왜곡·소화시켜 버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한 논리는 70년대까지 이어져 왔던 냉전구도를 등에 업고 기승을 부렸던 것이다. 지금의 탈냉전, 탈이념, 통일 지향의 분위기와도 동떨어진 견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4.3을 수난사로 보는 시각이다. 이에 따르면 4.3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사건보다는 변화기에 일어난 하나의 불행한 역사로 인식된다. 사건의 성격과 그 진실성



◇4.3은 제주지역의 현재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동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연구의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그럴수록 객관적인 사실규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명제를 확립시켜야 한다. (사진은 추격전을 벌이는 국방경비대)

이전에 그 사태에 좀더 애정을 갖고 보고자 한다. 즉, 4.3을 대체로 비극적인 사태로 보며, 이 사태의 피해자인 제주도민의 한에 깊은 이해와 근근하면서 고통스런 인식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제주 출신 문인들의 작품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 유족회 중심의 움직임에서도 그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부 문인들이나 유족회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이러한 공감대는 자칫 4.3을 결과로서의 수난의 역사로만 보아 버림으로써, 전체로서의 4.3을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무엇 때문에 산에 올라갔고, 왜 죽어갔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 인식과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위와는 달리, 4.3에 참여한 도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4.3을 민중항쟁으로 보는 시각에 입각한 연구이다. 이 관점에선 연구자들은 미군점령기에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가혹한 탄압과 만행을 피해 유혈투쟁을 따라 대거 입산해 있던 제주도 민중들이 남한만의 단선·단정 반대하에 일으킨 항쟁으로 보고 있다. 또한 48년 10월 이후의 민간인 대량 학살을 여순사건 등 본토로의 학살에 대한 미군과 대한민국의 정부와 위기의식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4.3을 도민들의 공격적 무장투쟁으로보다는 미군정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항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견해는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도민들이 적극 참여한 4.3의 역사적 의미를 단선·단정 반대를 통하여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항쟁이라고 뚜렷이 하게 하였고, 재산 유격대에 가담하였던 도민들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시각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중항쟁이라고 하면 제주도 민중을 항쟁의 주체로 보겠다는 것인데, 이들이 항쟁에 가담했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느낌이다. 5·10 단선 지지라는 정치적 이슈만 앞세워 민중항쟁으로 파악하고, 4.3을 폭동·반란으로 보는 시각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도민들이 항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던 원인을 당시 그들의 사회경제적 생활 조건, 공동체적 유대 관계 등의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III

이상에서 제주현대사의 분수령인 4.3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 안목에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4.3 연구는 경험자들의 주관적인 접근이나 문인들의 문학적 접근, 사회과학도들의 이론적 접근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유감스러운 것은 실증적인 역사학적 접근이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4.3은 제주 지역의 현재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동시대의 역사이기 때문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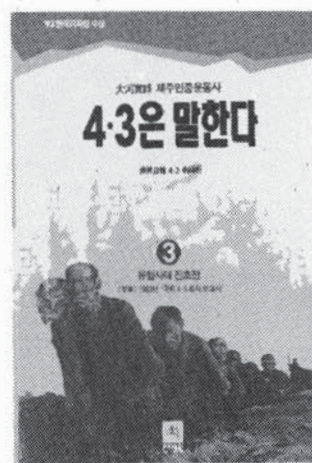
『4.3은 말한다』 제3권-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3권-제민일보 4.3취재반

4.3을 맞이하며 문득 제주 4.3의 세계를 생각한다. 하나는 항쟁으로서의 '死·살'의 세계인데 4.3이 내포하는 사회적인 삶의 의미이다. 둘째는 수난으로서의 '死·살'의 세계인데 작은 땅의 사람들이 겪었던 죽음의 의미이다. 셋째는 현실로서의 '死·살'의 세계인데 살아있는 삶의 의미이다. 3차원의 세계가 서로 이어지면서 하나로 모였다가 또 한 여러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제주4.3의 진실규명 작업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숙제에 대답하려는 의미는 노력이 제민일보 4.3취재반이 연재하는 대하실록 제주민중운동사 '4.3은 말한다'이다. 금년 4월에 그 3권이 출간되었다. 1권과 2권이 항쟁으로서의 '死·살'의 의미에 접근해 보려는 것이었다면, 3권은 그 '유혈사태'로 보겠다는 것인데, 이들이 항쟁에 가담했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느낌이다. 5·10 단선 지지라는 정치적 이슈만 앞세워 민중항쟁으로 파악하고, 4.3을 폭동·반란으로 보는 시각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도민들이 항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던 원인을 당시 그들의 사회경제적 생활 조건, 공동체적 유대 관계 등의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숙제에 대답하려는 의미는 노력이 제민일보 4.3취재반이 연재하는 대하실록 제주민중운동사 '4.3은 말한다'이다. 금년 4월에 그 3권이 출간되었다. 1권과 2권이 항쟁으로서의 '死·살'의 의미에 접근해 보려는 것이었다면, 3권은 그 '유혈사태'로 보겠다는 것인데, 이들이 항쟁에 가담했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느낌이다. 5·10 단선 지지라는 정치적 이슈만 앞세워 민중항쟁으로 파악하고, 4.3을 폭동·반란으로 보는 시각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도민들이 항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던 원인을 당시 그들의 사회경제적 생활 조건, 공동체적 유대 관계 등의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름으로써 강자에 의한 강압적 물리력과 폭력이 평화적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항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4.3과 5·10단선거부로 이어지는 무장대의 활동이 8·25지선거로 집중되면서 북한정부 지지로 변질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 미군정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강경하고도 무자비한 토벌작전이 시작되는 과정을 밀도있게 추적하고 있다.

부록에도 눈여겨 볼 자료를 실고 있다. 1960년 국회 '4.3조사 보고서'는 제2공화국 당시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활동상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현재 제주도의 회 조사항목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뿐더러 국회의원들의 진상규명이 조속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U'런이 본 '제주4.3'이라는 짧막한 자료는 4.3연구에서의 국제적 시각에 대한 자료탐구가 있어야만 4.3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

끼는 것은 발로 뚫은 노력만큼 이뤄진 4.3의 많은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라라. '4.3은 말한다'는 제목 스스로가 보여주듯이 제주도 사람의 증언의 목소리로 4.3을 말하고 있어서인지 언론인의 애정이 책값과따라 배이는 듯하다.

아무리 잘 쓴 책이라도 보완할 점은 있게 마련이다. 미군정(8·15이후의 한국정부)과 대한세력에 초점을 두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과 고민에 대한 조명이 보다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死·살'에 치우치다가 '死·살'을 간과하는 일이 생길 수 있듯이, 객관적인 '死·살'의 공방전에 치우치다가 '死·살'의 책임문제가 모호해질 위험도 있다. 지금의 논의 속에 지역적·민족적·국제적 측면에 대한 균형잡힌 추적속에 북한에 대한 자료와 연구를 보충해 나갈 때 보다 명백한 해석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사용하는 명칭이 두 가지인 바, 하나는 해석을 유보한 4.3이며, 또 하나는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는 민중운동사이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서술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해석을 이루어가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소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보완됐으면 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언론인이 애정어린 발로 뚫은 4.3이라는 점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앞으로의 작업이 '死·살', '死·살' 그리고 '死·살'의 세계를 탄탄하게 드러내어 제주 4.3의 역사적 재평가와 더불어 '死·살'의 복원과 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고창훈(행정학과교수)

■ 시사용어 — 파산선고제

'파산선고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집행으로 재정위기를 겪게 될 경우 내부부가 파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재정면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강화추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내무부의 이러한 파산선고제의 실시방면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 첫째 이유로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해오던 지방행정기관의 예산편성은 물론 각종 개발정책과 지방채 발행 등의 상당부분이 시·도·시·군·구에 맡겨지게 돼 시·군·구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재정부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최병렬 서울시장의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지하철사업의 경우 25%선에서 그치는 상황에서 해외장기차관 차관의 허용 등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파산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방법론이나 의도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파산결정의 주체가 중앙정부냐 아니면 주민이나 해당회나 하는 것이고, 둘째 지방재정의 파산을 우려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고 단체장 재정관리를 해소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緣)

SUPEX
SUPER EXCELLENT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페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페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특별기획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산주의자 획책에 도민들 멋모르고 추종...1만2천사망 정부지원으로 위령탑건립해 화합분위기 조성해야

1. 4·3은 왜 발생했다고 보는가?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벌인 애국 지사의 거의가 해외에 망명하여 해외를 무대로 하여 독립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에 관한 한 공산주의자들이 더욱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더구나 일본이 1940년대에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방공협정(防共協定)을 맺고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리의 눈에는 이들이 공산주의자로 보지않고 철저한 항일투사 내지 애국자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투옥자=독립투사'로 인식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감옥에 잡혀가기만 하면 독립운동가로 보고 있었다. 또한 '독립운동가=애국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애국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 인식속에 해방이 되어 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오자 영웅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열렬히 환영하는 군중속에서 이들이 열변을 토하면 이 말은 바로 정의요, 진리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들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인민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인민공화국을 지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시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물결에 휩쓸려 추종해왔다. 이것이 해방직후의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의 각본대로 일반대중은 멋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었다. 여기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자 이들은 일제히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드디어 이들은 무력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항쟁을 결행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4·3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세웠던 인민공화국은 통일정부였는가? 그도 똑같은 북한의 단독정부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이를 통일정부라고 지향했다면 이는 바로 공산주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4·3기간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선거를 거부한 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국회)의 대의원(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북한의 8·25선거에 동참, 남한의 360석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해주의 남조선 인민 대표회의에 6명의 제주도 대표를 지시선거를 통하여 파견했다면 단순한 제주만의 사건이 아니었음이 짐작될 것이다.

2. 4·3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4·3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고무줄처럼 재빨리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있다. 많게는 10만에서부터 적게는 1만내외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두가 확실한 근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는 출근 1만2천을 주장해왔는데 그 근거는 인구통계에서 산출한 숫자이므로 가장 정확한 근거에 의한



김병언

숫자이다.

1948년부터 1949년에 걸쳐 인명피해가 있었으므로 1948년의 인구에서 1949년의 인구를 뺀 숫자가 1만2천이다. 출생에 의한 증가요인과 자연사망과 사건을 피해서 도피한 감소요인을 상쇄하면 이때의 인구차는 거의 사건에 의한 사망자 숫자와 동일할 것이라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1949년의 인구가 1948년보다 1만2천이 적다는 것은 12,000명이 사건에 의해서 죽었다는 산술계산이 나온다. 작년에 제주도 의회에서 4·3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조사한 바 있고 불일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므로 이 발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숫자가 얼마나 근사치였는가가 검증될 것이다.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볼 일이 없다.

3. 4·3을 어떤 식으로 보상 또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흔히 4·3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거의 실현성이 없는 정치성 인기발언에 불과한 허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막대한 보상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계층에 영합하기 위한 정치적 인기발언은 현실정치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민심을 들뜨게 하여 역기능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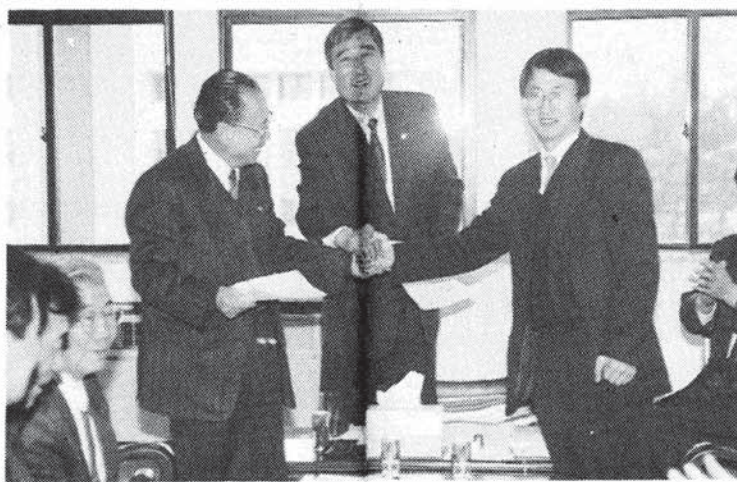
그러므로 그보다는 4·3을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춘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가능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곳을 공원과 내지 사적지화 함으로써 이 곳에서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면 이 위령탑은 제주도민에 대해서는 화합의 탑으로 부각될 것이며 관광객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적탑으로 그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제주도에서 해마다 4·3희생자에 대한 위령제가 봉행되고 있는데 이 행사는 4·3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이고 끝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4. 4·3과 관련 국회 또는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4·3위령탑을 하루빨리 국가예산으로 건립해 달라는 것이 당국에 대한 우리의 바람이다. 앞의 3항에서 언급한 4·3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가 단순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신원의 차원을 넘어서 현장에 모이는 제주도민의 마음의 순화를 통하여 전 제주도민으로 파급되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위령탑이 건립되어

○...다시 4·3을 맞았다. 다행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탑동에서 합동 위령제가 치러지긴 했지만 그 협의 과정에서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와 '4·3사건 민간인희생자 유족회'간에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여줬듯이 아직도 4·3을 보는 관점들이 다름을 재차 노출시켰다. 그러면 대체 어디에서부터 다르게 보고 있으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인가. 현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본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관점과 입장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두 4·3연구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여운이 솟)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4·3공동위'와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간에 합동위령제 개최에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

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령탑은 영원한 영구적 역사적 시물로서 불멸의 화합의 탑이 될 것이다.

5. 종합적인 견지에서 4·3에 대해 어떻게 역사적 평가를 해야한다고 보는가?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문민 정부에 의하여 재정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국가교육 내용전개 준거안 연구위원회'에서 새 고교 국사교과서(96년 적용)에 현재의 '제주 4·3사건'을 '제주4·3항쟁'으로 개칭하고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가 학계가 왈칵 뒤집힌 일이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는 교과서의 용어는 국민정서에 적합하고 학계에서 정설화된 내용만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혀 기존의 내용을 재확인 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도 대구 폭동, 4·3사건, 여순 반란사건 등은 치우친 사관에 의해 항쟁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과거와 정권이 반공을 독재의 수단으로 정치에 악용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나 문민정부가 되었다고 해서 역사가 뒤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당시사회의 총체적 모순의 귀결...사망자 3~5만 국회특위구성·특별법제정 등으로 진실 규명해야

1. 4·3은 왜 발생했다고 보는가?

원인없는 결과 없듯이 제주4·3은 명백히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누적된 당시 제주사회의 총체적 모순의 귀결이자, 사태의 전개에 따른 결과였다.

해방 후 우리 민족은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제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모든 외세의 개입을 배격할 자주독립국을 건설하는 민족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실천에 들어갔다. 그러나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정은 점령 즉시 포고문과 성명을 통해 "현존하는(일제시대) 제 관청"의 존속과 집무 계속를 명령하는 한편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인민위원회의 해산을 명했다. 이는 자주독립국가수립이라는 민족의 열망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 결과 친일과 민족반역자가



김동만

대를 했던 것이다.

따라서 4·3은 미군정의 점령정책의 실패, 조국과 민족을 물로 나누려는 분단정책에 대한 저항, 미군정의 악질 친일 관리·경찰의 재등용 및 미군정 관공리의 부패에 따른 도민의 반감, 서청과 경찰의 강권적 탄압과 야만적 만행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이면서도 정당하게 일어난 것이다.

2. 4·3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4·3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당시 발표자료와 여러 학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대략 3만에서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유추된다.

49년 10월14일자 서울신문은 2만9천7백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제주도지』(82년판), 『제주백년』(강용삼·이경주 편지)에는 "경찰의 발표 인명피해가 사망 2만7천7백19명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박명림(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과 미국인 학자 존 메릴은 여러 통계자료를 토대로 3만에서 4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제주도를 비롯한 정부측과 미국인 학자들에서 나오 있다. 그러나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자료가 산정하는 기준시기가 48년 4·3발발 이후부터 49년 10월까지 만 1년6개월동안 만의 집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4·3사망자의 집계기간은 47년 3월1일부터 4·3이 종식되는 57년까지로 보아야 한다. 6·25이후 예비검속으로 인한 학살자와 형무소에서 이뤄진 수천명의 집단학살자도 명백히 4·3으로 희생된 사망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4·3 희생자는 직접적 학살에 의한 사망 뿐만 아니라 피난 중 아사, 동사, 행방, 수감중 병사 등 사망원인이 4·3에 기인한 사망자 역시 포함돼야 한다.

4·3은 인명피해 외에도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다. 55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4·3사건 피해상황조사'자료에 따르면 1백80개 마을이 참화를 입었고, 불타거나 파괴된 피해가옥이 3만5천9백21동에 이르렀다. 이재민 수는 당시 인구의 35%가량인 9만1천7백32명이며, 소·말 등 기타 가축피해도 엄청났다.

3. 4·3은 어떤 식으로 보상 또는 해결해야 되는가?

어느쪽에 희생됐든 모두가 피해자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진상을 규명하고 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4·3치유의 길이

라 생각한다. 4·3희생자중 80~90%는 토벌대에 억울하게 희생됐으며 '빨갱이' '범법자'로 낙인찍혀왔다. 또한 이러한 낙인은 현재도 유족들을 옥죄고 있다. 반세기이 지난 지금,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도민 모두의 책임이다. 이와함께 '4·3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문제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배상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부 유족은 연금을 받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긴 하지만 이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희생자들을 국가적으로 위무하기 위해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위령탑을 세우고, 후손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정사 편찬' 및 '4·3박물관' 건립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희생자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해코지하는 일없이 화합의 장이 돼야 할 것이다. 5·18광주항쟁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미국·미군정의 잘못을 분명히 가려 그 책임을 명백히 하고, 국제적 차원의 진실 규명과 배상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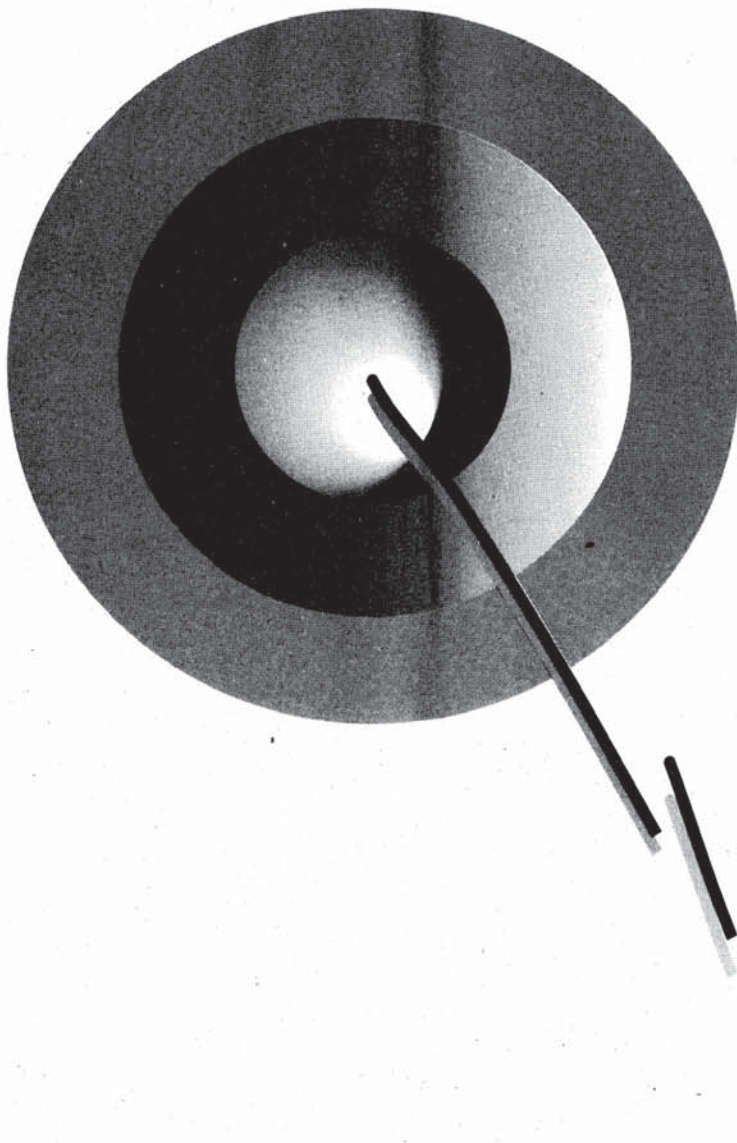
4. 4·3관련 국회 또는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4·3의 원혼을 달래고 진상규명과 도민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배상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4·3을 치유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4·3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만 2·28사건에서 대만 정부가 보여주듯이 정부는 과거의 과오에 대해 시인하고 도민들과 유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4·3평화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등 4·3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각종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5. 종합적인 견지에서 4·3에 대해 어떻게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국민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지금,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4·3 역시 올바른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4·3은 미군정과 경찰의 무자비한 억압에 대항했고 민족의 분단인 단장을 반대한 것이지만, 북한을 지지해 항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 만큼 정통성도 더이상 문제될 것도 아니다. 오늘날 제주도는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4·3을 덮어둔 상태의 제주의 이미지와 4·3을 규명한 다음의 제주의 이미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제 4·3으로 인한 제주인들의 비극이 얼마나 컸는가를 후손들에게,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은 결코 국가의 수치가 아니다. 통일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리고, 인간에 대한 경의와 민주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교육의 지표로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연구소 사무처장)

Pacific Design Contest



제1회 태평양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1. 공모 내용

주제: "환경, 인간, 우리의 미래"
내용: 제품(용기, 포장)디자인부문, 시각디자인 부문.

2. 공모 자격

디자인 전공 대학생(전년대, 대학원생 포함)

3. 제출 규격

요강 참조(미술대학 학과 사무실, 태평양연구소 및 각 지점)

4. 접수 일자

예선: 1995. 6. 28(수) 10:00~18:00까지 (태평양 디자인연구소)
(제품부문 용서자 중 용기 모형에 관한 사항은 1차 예선후 예선 통과자에 한해 MOCK-UP 지원)

본선: 1995. 8. 28(월) 10:00~18:00까지(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5. 심사 발표

1995. 8. 30(수) 개별동지 및 일간지에 발표

6. 시상 및 특징

대 상 1점: 5,000,000원 및 상장, 트로피
우수상 2점: 각 3,000,000원 및 상장, 트로피
특별상 1점: 1,000,000원 및 상장, 트로피
특 선 10점: 각 500,000원 및 상장, 상패
입 선 20점: 상장 및 상패

특 전: 우수상 이상(3명)에게는 해외 디자인관련 업체 견학, 인사지원시
특전(요강참조)

7. 전시 일자

전시일자: 1995. 8. 31~9. 6일(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요강 참조

●기타문의 사항: 709-6213, 6241, 6210, 5434



태평양 후원: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특별기획

치유되지 않는 4·3의 명을들 - 도의회 4·3피해신고실에 비친 사연

“신고허영 놈두민 또 오라가라 허멍 귀찮게 할 거 아니라”

“죽도 토벌 갈 사람은 손드시오. 3일 정도 토벌갔다 온 사람에겐 양민증을 발급해 주겠다며 트럭에 싣려 나간 남편은 돌아올 줄 몰랐다. 제주시 ‘박성내’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을 뿐. 혼인신고도 안된 상태에서 낳은 아들을 입적시킬 호적마저 없었다. 물론 현재도 친정호적에 매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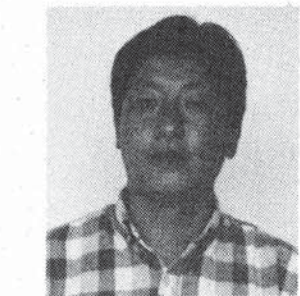
“4월이 조금 못미치는 갑방 안에 42명을 수용시켰으니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물사정도 좋지

않다. 당시 9살의 어린 눈에 비친 정방폭포 학살의 생생한 기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슴에 후벼본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든 죽음이 수도 없이 많다. 오히려 더욱 우울하게 만들어 왔던 것은 불명예스런 누명이 족쇄처럼 채워지고 연좌제로 인한 피해, 호적의 미정리,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최근 4·3유족들의 애월을 소갈리 원동 마을 토지 반환 소송도 좋은 예이다.

이처럼 4·3은 47년이 지난 과거사로 매듭지워진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제주인의 명을로 자리잡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4·3피해조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제주도의회내에 4·3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훈)가 구성되면서부터였다(93. 3. 20.). “4·3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각기 그 입장을 달리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그것이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으며, 우리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극의 역사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바른 역사를 정립하여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는 것이 특위 구성의 제안 이유였다.



강 덕 환

제주도의회 4·3조사위원

않아 오줌싼 것을 받아 마실 정도였고, 여름철이라 열어 놓은 창문으로 모기가 들어 오다가도 감방 안의 열기 때문에 되돌아 갈 정도였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반으로 나눠 교대하면서 자보기도 했지만 형무소 규칙상 취침시간에 잠을 안자면 그것조차 문제삼았다. 그래서 방을 가운데로 나누고 4층로 사이사이에 꼭 끼어 자는 방법을 써 보았다. 겨우 견딜만 했다.”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을 보고 부모님은 누나와 나를 데리고 뒷 대나무밭 속으로 숨었습니다. 숨어서 보니 우리집도 불타고 있었습니. 밤이 깊어서 집에 와 보니 집은 다 타고 재만 남았습니. 배가 고와 술을 찾아보니 두죽으로 조개져 있었습니. 고구마 구워진 것을 두개씩 먹고 피난 갈 준비를 하였습니. (중략) 굴 속에 연기가 짙 차 왔습니. 푸는채질을 하니 연기가 밖으로 나갔습니. 그 굴을 나오면서 보니 싯탄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었습니. (중략) 정방폭포 입구 왼쪽 지하실로 가됐습니. 내가 겁을 먹고 우니까 시끄럽다고 하면서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눈 왼쪽이 병신이 되었습니. 삼일째 되던 날 8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정방폭포 옆에 세우고 젊은 청년들에게 창으로 찔러 죽이라고 시켰습니. 나는 누나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

그 일환으로 지난해 2월7일, 도의회내에 ‘4·3피해신고실’이 개설되었고 또한 17명의 지역별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4·3관련 피해조사와 증언·자료 수집 등을 해나갔다.

도의회가 지난 여러가지 한계에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많은 반향이 불거져 나왔다. “잊혀져 가는 일을 이제와서 들춰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냉소적 시각에서부터 “반드시 진상을 규명

7인을 정수로 하여 구성된 특위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4·3의 진상규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의욕만 갖고 해결하기 힘든 과제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할 뿐더러 꾸준히 해 연구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놓고 볼 때 도민의 대표기구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역사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조사 △4·3 역사 정립 △도민화합방안 마련이라는 단계별 활동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2월7일, 도의회내에 ‘4·3피해신고실’이 개설되었고 또한 17명의 지역별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4·3관련 피해조사와 증언·자료 수집 등을 해나갔다.

도의회가 지난 여러가지 한계에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많은 반향이 불거져 나왔다. “잊혀져 가는 일을 이제와서 들춰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냉소적 시각에서부터 “반드시 진상을 규명



◇도의회에 4·3피해신고실이 개설되면서 피해자들의 방문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위) 4·3으로 사라져 버린 원동마을에서 현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4·3특위 위원들(아래)

태극기 사지 않는다고 끌어가 처형
담배 말아 피우려고 붙여뒀던 뼈라 때문 참사
밭에서 일하다 유탄에 맞아 사망
폭도새끼라고 어린애를 돌담에 내리쳐 학살

하여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줘야 할 것”이라는 격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었다.

애초부터 쉽지 않은 작업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아직까지 피해조사를 실시해 본 선례— 물론 60년도에 국회진상조사단이 잠깐 내도한 바 있었지만—가 없음으로써 조사과정의 전문성이 부족함에서 오는 시행착오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대단한 것이었다. 도의회의 피해조사위원회에 대해 대부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억력으로는 피곤했지만 접어들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터뜨리고 싶었던 사연들을 펼쳐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몇몇 마을에서는 그간 마을자체 내에서 알게 모르게 조사해오던 피해자의 조사사실을 접수시키면서 조사활동에 힘을 쏟기도 했

다. 도의회에서의 피해조사활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타시도에 거주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까지도 피해사실을 접수시키는 등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며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도 있어 어려운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 형태가 유지되어 오거나 증언자가 풍부한 마을에는 피해사실을 접수시키는 등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며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도 있어 어려운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 형태가 유지되어 오거나 증언자가 풍부한 마을에는 피해사실을 접수시키는 등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며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도 있어 어려운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시론 ‘4·3’, 어떻게 풀 것인가

정부·국회가 나서야 한다



양 조 훈

제민일보 편집부국장

제주인의 한 맺힌 역사 ‘4·3’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4·3은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촉구하고 있다.

필자는 4·3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과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굳게 닫힌 체감자들의 말문을 자유스럽게 열게 하는 일이고, 둘째는 4·3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일, 셋째는 정부 및 미국은 비밀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넷째로 이런 일련의 작업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네번째의 문제에 관해서만 언급하겠다.

4·3의 비극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데 있다. 세계사에서도 전쟁상태가 아닌, 제한된 지역공간에서 제3국과 같은 유혈사태가 벌어졌던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1949년 4월1일 작성된 미국 비밀문서 「4·3 종합보고서」에는 ‘사망자들은 적어도 80% 이상이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4·3취재반의 현장취재를 통해 피해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군경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 죽음의 역olum은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 4·3의 참상은 중앙정부에 의해 철저히 봉쇄당해 왔다. 이승만 국무총리와 군부 독재정권은 4·3의 논의조차 금기시했다. 또 그 희생자의 유족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혹은 형이, 혹은 삼촌이 토벌대의 총에 사살되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붉은 것’으로 낙인찍혀 연좌제의 사슬 등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러면 대량 인명희생을 유발한 중간간 초토화작전은 누가

명령한 것인가. 최근에 제민일보 4·3취재반은 국제법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중산간 초토화작전 구상과 채택과정에 미군정과 중앙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4·3은 말한다」 제3권은 초토화작전 감행의 구조적배경을 집중 조망하고 있다).

4·3의 상흔을 치유하는데 중앙정권이 나서야 할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매듭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제주도에 일각에서는 4·3을 구조적인 전체 맥락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데올로기적 시각에 치우쳐 논쟁을 벌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참모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논쟁은 자칫 건국 초기에 사상문제를 둘러싸고 제주사람끼리, 혹은 제주사람과 육지세력과의 피나는 싸움을 했다는 식의 단순논리로 물고갈 위험이 도사려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4·3은 미군정 아래에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집약적 모순이 빚어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제주도사건’만으

로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한 냉전구도와 그 당시 남한사회의 보편적 모순구조, 미군정의 정책, 제주도의 저항역사와 언론이 통제된 당시 상황에서의 제주섬의 특수한 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런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당시의 제주인은 분단과 냉전시대의 희생물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민정부라는 현정권은 4·3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난 92년 대선 때 김영삼 대통령은 제주4·3의 명예회복과 화합위원의 위령사업을 공약한 바 있다. 그 이후 국무총리들은 국회에서 4·3은 지난 시대 불행한 역사이며, 국회사 공인된 단체·학계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할 경우 정부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과거의 정부입장과 비교하면 진일보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새정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은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국회에 요구한 청원도 그렇다. 93년 이후 4·3특위 및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제주도의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75명의 서명발의 등 3건의 청원·발의가 있었으나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이런 현상은 중앙정권의 무관심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제주도민의 결집력 부족에도 반성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사 연구를 애써 외면하는 학계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지역의 변방성과 역사의 변방성은 분명 다른 개념인데도 4·3에 한해서는 철저히 관통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4·3 특별취재반장)

선 연구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기막힌 사실은 4·3당시 희생된 것은 분명하면서도 어머니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를 나무란다기보다는 불행한 역사의 한 단면을 엿보는 서글픈일 수 밖에 없었다.

1년여의 조사활동기간 동안 피해접수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서면서 그 내용마다 워낙 사연도 가지가지다. ‘태극기를 사지 않는다고 끌어가 처형’ ‘담배를 말아 피우려고 붙여뒀던 뼈라 때문 참사’ ‘밭에서 일하다 유탄에 맞아 사망’ ‘마을소각지 불에

타 사망’ ‘폭도 새끼라고 어린아이를 돌담에 내리쳐 학살’ ‘밤중에 어린아이를 들쳐안고 나오다 보니 다른 아이여서 아기를 바꿔 안고 나오다 토벌대에게 들켜 아버지를 잃게 되는 기구한 사연’ 등등 현대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 제주사회의 삶을 억누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도의회의 이러한 활동은 4·3해결의 완성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기초’일 따름이다. 일가족의 몰살과 학살 ‘밭에서 일하다 유탄에 맞아 사망’ ‘마을소각지 불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간상, 인력상 더 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나 국회차원의 노력에 의한 4·3의 상황변화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망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거 신고허영 놈두민 또 오라가라 허멍 귀찮게 할 거 아니라”라고 우려하며 신고하기를 주저하던 봉개동의 한 할머니의 근심을 말끔히 씻어내지 않는 한 4·3으로 인해 제주사회에 만연된 갈등의 씨앗은 잠재된 뿌리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태평양그룹



무 한 복 일 주 의

LET'S

젊음의 화운데이션

나를 아는 화운데이션- 렛세스

태평양패션



라보라

나, 렛세스로 탈출한다

자기 것이 아닌 건 벗자

간혀있던 나를 연다

내 것을 찾는다

내 가슴이 열린다



Let's be Xes

*렛세스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세대 2,018명의 체험을 실제 측정 조사하여, 내 몸에 꼭맞춘 새로운 화운데이션입니다.

아라포럼 제총협 진로를 생각한다

이념지향적·분파적활동등 반성 절실
변화에 대한 모색·실험을 과감히 전개해야

제주지역 학생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제총협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현재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학생운동의 운동대상인 대학을 포함한 사회전반은 과거와 달리 발전을 거듭하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정부적 정치활동과 사회주의 운동으로 대표되는 80년대 학생운동은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와 문민정부 등장으로 인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점진적 확보로 그 명분과 생명력이 다해가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한국사회의 학생운동은 화려한 족적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운동과 결별을 고하며 취업준비나 고시공부 등으로 각자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제 과거의 경험과 업적은 술자리에서의 추억거리 내지 무용담으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의 운동이 대체 어떠한가에 학생운동가들은 좌절하고 있다. 그들의 동지를 떠나는가? 바로 이 점이 새로운 학생운동의 시작을 선언하며 나아가야 할 제총협이 풀어야 할 제일 처음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날의 운동을 찬찬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송찬운

7,80년대의 운동이 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되었으며 살신성인하는 자기희생의 자세와 투철한 세계관으로 억압과 기만이 만연하던 시대에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거를 평가하고 비판하여 과거와의 분리를 통해 제총협의 출발을 선언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의 운동이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운동은 여타의 밝은 모습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과거의 운동이 대체 어떠한가에 학생운동가들은 좌절하고 있다. 그들의 동지를 떠나는가? 바로 이 점이 새로운 학생운동의 시작을 선언하며 나아가야 할 제총협이 풀어야 할 제일 처음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날의 운동을 찬찬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하였다. 우리의 운동진영이 이렇듯 모순의 집착으로 빠져들 때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우리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다. 90년대에 이르러 세계는 급속한 변화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냉전구조의 와해와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전면화로 인하여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존의 경험과 지식만을 가지고는 더이상 이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당신의 경쟁상대는 어느나라 누구입니까?'라는 텔레비전의 광고에서 극명하게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각각의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이란 기치 아래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고 기업들 역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생산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가지 예로 행정부를 들 수 있는데, 김영삼정부의 사정활동이나 각종 제도개혁과 개선이 정치 속성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행정부가 내세운 세계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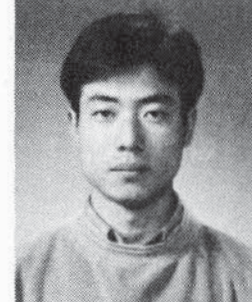
지방화라는 슬로건이 그대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90년대 이후 변화되는 국제환경 및 사회환경에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기업조직, 정치조직, 사회운동조직들 모두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변화를 예기하고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다. 변화의 뒤풍무늬를 가가스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두에서 주도해나가야 하는 것이 학생운동의 임무이자 사명이라고 할 때 제총협이 변화에 대한 모색과 실험을 과감하게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총협이 과거 운동의 성과로 형성되었던 객관적인 사회의식과 정보운동의 운동적 에너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자발성과 참여의 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것이야말로 과거운동의 성과를 올바르게 이어받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과거의 이념 지향적이고 분파적인 제총협활동이 아닌 새로운 학생운동으로서 제총협의 활동은 새로운 관점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사교의 중심에 놓고 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하여 개개인이 조직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만족감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운동, 결론적으로 개인의 이기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타성을 키워내고 이러한 운동적 에너지를 통하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운동을 제총협의 조직운동에서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총학생회장 행정4

체질혁신은 간부부터... 즉흥적 결정은 금물
청년학생다운 패기·진취적 자세 견지를

"1만4천의 청년학생들 펼쳐 앞선 길에는 제총협의 깃발이..." 제총협 전군가의 첫부분이다. 어려운 시기에는 선두에 서서 불의에 대항해 싸웠으며, 탐라순례대행진·농촌봉사활동등을 통해서도 도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어려움을 함께 해온 제총협. 89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7기째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 7기째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 7기째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 7기째 접어들고 있다.



홍상범

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청년학생다운 고민과 실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본다. 나의 문제의식은 학생들은 천재가 아니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라는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학생다운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청년학생다운을 정리하면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위해 결코 두려움을 모르는 자세인데 우리 제총협은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제총협의 개혁과 체질혁신에 관해 잊지 말아야 할 자세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제총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개혁은 결국은 제총협성원들의 개혁하려는 의지, 변화된 사고의식와 의외·충화라고 부를 수 있는 자세에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비판·평가를 모습, 우물쭈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파해버리는 자세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다. 얼마나 사전에 착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때를 포착하여 적절히 대응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 또한 좀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준비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때를 놓치지 않는 실천 속에서만 가능하리라 본다. 만일 모든 게 제대로 잘 안된다 치자. 물론 욕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여러

러는 노력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만 좀더 시야를 넓게 할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총협의 변화와 발전 또한 우리 대중간부들의 학우들과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참된 의미를 알았을 때 스스로 거듭나게 되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 제총협 대중간부들은 강의를 이전해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 이렇게 학우들과의 부딪침, 만남의 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작은 고비를 넘기면 서로서로 가슴을 트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들의 신념과 의지를 중심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려는 자세가 있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지만 거대한 변화의 수레바퀴는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대 결심했어"식의 원칙과 중심이 없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자세를 결코 과감히 말아야 하며, 바로 그 순간 개량으로의 진입이고 방향으로 가는 것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식대로 하자 하여 자기중심적인 고민을 하는 것도 문제이며 예전에는 이렇게 많았다고 주장하면 역시 시기를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고칠 것은 과감히 스스로 개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전에 했었던 것이 그 당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최선의 결정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최선의 자세로 준비하자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제총협의 슬기로 거듭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95년부총학생회장 화하4

기획
연재

부서별 사업계획을 듣는다

연한 계획으로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본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대학내의 주요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 및 업무를 중심으로 각 부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각 부서에서 발표한 사업계획들의 실천여부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우리 대학내의 각종 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과연 ○○부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대학발전에 역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태의연한 계획으로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본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대학내의 주요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 및 업무를 중심으로 각 부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각 부서에서 발표한 사업계획들의 실천여부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여운이 씀)

교수계획서·수강편람 내용보완

4월중 교양동 세미나실에 대형비디오비전 설치

수업과

수업과(과장 김영섭)는 수업시간도 작성 및 관리, 학점 및 성적관리, 특별강좌 운영 등 수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올해 수업과의 중점사업은 수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수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매체를 제공하고 수업환경을 개선하는 미국 주력할 방침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4월중 교양강의동 세미나실에 대형 비디오비전설치 △전체강의실(120실)에 자동분발필터기 설치 △침관·교과보수 및 교재 △현재 교양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인문대 강의실 3개, 법정대 강의실 2개, 경상대 강의실 3개에 1학기중에 랩트 및 마이클를 설치할 예정이다.

둘째로 재학생들의 수강신청 편의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폐내고 있는 '수강편람' 및 '교수계획서 합본'을 좀더 체계화하여 발간할

계획중에 있다.

수업과에서는 '2학기 수강편람'의 내용을 좀더 보완하여 오는 5월중에 발간할 예정이고 발간부수 또한 작년보다 1백부 더 늘어난 5백부를 발간할 방침이다. 아울러 '2학기 교수계획서 합본' 발간시에는 교양과목 담당교수들의 협조를 얻어 성적평가방법 및 교과목에 대한 교수요목을 보다 상세히 수록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업과에서는 이 책을 수강신청 기간전에 2백부를 발간하여 각 학과 사무실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셋째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학술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 1학기중에 모두 61개의 특별강의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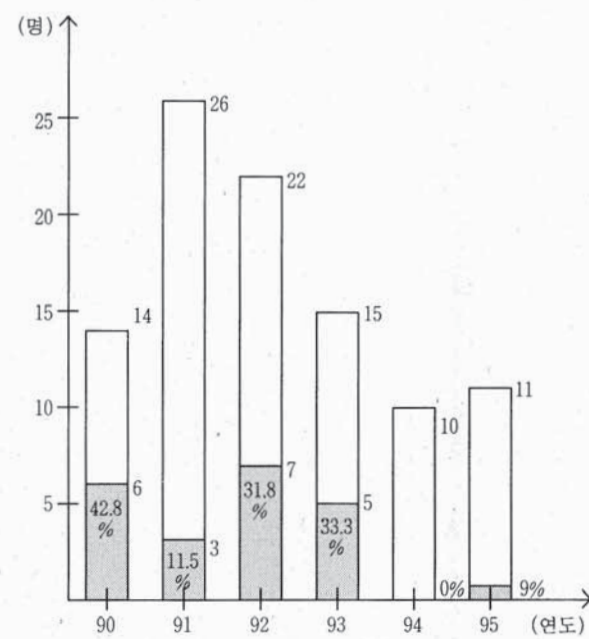
넷째로 수강신청의 잘못으로 불필요하게 수강과목을 변경하거나, 졸업학점 부족으로 인해 졸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수강신청시 사전지도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휴·결강시 반드시 보

강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출석부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등의 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수업과 직원근거장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정에서 수

업과 인원을 감축해 버린 관계로 현재 수업과의 업무량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과 학장을 제외한 직원들이 한명밖에 배치돼 있지 않아 인력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實)

◇ 그림으로 보는 뉴스



◇ 90년~95년 신규임용교수 중 본교 출신 교수.
(단, 빗금친 부분은 우리대학 출신임)

폐강교과목 소개

현대 민주주의론

이 교과목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특징에 대한 이념적·제도적인 고찰을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사회가 모색하는 좌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구에서 발흥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서양 정치가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이러한 이론의 검토위에서 현대민주주의의 여러 문제점과 영국·미국·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제3세계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제를 조망하게 된다.

95년 1학기에 4백75개의 교양교과목중 30개의 과목이 폐강됐다. 당국의 노력에 의해 폐강교과목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있지만 선풍들의 조연이 수강신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서는 폐강되는 교과목은 매학기 폐강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사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혹은 일부 교과목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현상은 아닐까 하여 계속 폐강(추진)되는 교양교과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하는데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여운이 씀)

이러한 기본틀을 바탕으로 ▲정치이데올로기들의 개념, 기능, 유형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본 가정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민주주의관 및 국가론을 통해 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한계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

다원주의 참여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순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미래 사회의 탐구

이 교과목은 현대 산업사회이후 도래하는 정보사회 혹은 후기 산

업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사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현재적 함의를 논의함으로써 그 시대의 주역이 될 오늘날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수가 준비한 주제들을 강의한 후 참고교재를 통해 각 내용들에 대한 요약 및 비판적 의견을 레포트로 제출하고 이 제출된 레포트를 가지고 세미나를통해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런 수업내용에 맞춰 ▲사회구성원/사회구조의 차원에서 미래 사회의 탐구를 위한 시각 고찰 ▲사회구성원의 원리와 구조변동 ▲원시·고대·중세·현대산업사회의 거쳐 미래사회의 출현과정을 살펴보고 ▲문화비평과 인류학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취재부)

21세기 제주농업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제주농업과 농촌문제 해결에 노력

21세기 제주농업연구회(공동대표 김지용 농업경제학과 교수·김세중 세무주식회사 대표이사)에서는 지난 4월1일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연구회 정관을 의결하고 회장단을 구성하는 한편 제주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농과대학 교수, 농업관련기관장, 농어민 후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부 창립총회는 △내빈소개 △경과보고 △개회사 △정관심 의결 △회장단 선출 순으로 진행됐고, 2부 변화와 개혁의 신농정인 주제로 최영부(청와대 농수산 수석) 특별강연, 3부 제1회 제주최고농업인상 시상식(수상자: 문수향), 4부 △창립기념 축하연 순으로 각각 행해졌다.

세계화, 개방화의 원년을 맞아 제주농업과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결성된 21세기 제주농업연구회는 △회장=김지용(농업경제학과 교수)·김세중(세무주식회사 대표) △부회장=강인선(농어민후계자 제주도지부 회장) 신인준(한림농협조합장) 이현준(한국산업사 대표) 오승일(남제주군 의회 의원) △감사=고문삼(전 농어민후계자 제주도지부 회장) 이복만(제주시 의회 의원) 씨 등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초청된 최영부(청와대 농정담당수석) 박사는 변화와 개혁의 신농정인 주제강연을 통해 "신농정이 추구하는 경제체제를 위한 변화와 개혁은 농민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기혁신에 의한 새로운 각오와 자발적 참여, 그리고 국민적 이해와 협조"라고 밝혔다.



◇ 지난 4월1일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1세기 제주농업연구회' 창립총회 모습

독일이 특별연수 실시
7월17일부터 25일까지

독어독문학과(학과장 송성희 부교수)에서는 독일 본 대학의 Sprachlernzentrum(어학연수원)과 공동주관으로 하계방학기간에 독일어 특별연수를 우리대학에서

실시한다. 오는 95년 7월17일부터 8월12일까지(일요일 제외)실시되는 이번 연수에는 △초급독일어Ⅰ △중급독일어Ⅰ △중급독일어Ⅱ △고급독일어Ⅰ △고급독일어Ⅱ △실무독일어Ⅰ △실무독일어Ⅱ 등 8개의 강좌가 개설되는데, 각반 수강인원은 20명 이

내이고 강의는 독일 본 대학교 Sprachlernzentrum의 Dr. Kummer, Dr. Faulhaber교수들이 직접 맡게 된다.

수강비용은 32만원이며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4월17일까지 독어독문학과 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4·3관련 슬라이드 상영

지조위, 30~31일

지역조사위원회(위원장 김태영)는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4·3관련 장소에서 4·3관련 슬라이드를 상영했다.

학우들에게 4·3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조위에서는 4·3관련 장소를 주제로 그린 강요배 화백의 그림 및 4·3당시 기록사진 1백50여장으로 편집된 4·3슬라이드를 약35분간 상영했다.

【교수동정】

▲최치규(물리학과)교수=지난 3월3일부터 4일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제3연구동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주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교류회'에 참석.

▲권오근(농학과)교수=지난 3월29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평의회에 참석.

▲강희석(수의학과)교수=지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린 수의학 교수협의회에 참석.

▲강정우(과학교육과)교수=지난 3월22일 전국 국립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주최로 서울대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교사 양성 및 임용제도에 관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 또한 23일 사단법인 한국 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하림사에서 열린 '지역 과학 교육단체 연합회 결성 준비 회의 및 제3회 학생 과학 탐구 올림픽대회 설명회'에 참석.

▲권기린(부속공공장·기계공학)교수=지난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공대부속공정장비보안 및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대전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부산수산대학 공대부속공공·창원대학 공대공공실험실을 방문함.

오는 11일 총운영위원회 개최 상반기 사업계획 및 4개 위원회 신설여부등 심의

총학생회 상반기 사업계획 심의 및 전문위원회 인준 등을 위한 95학년도 총운영위원회(의장 송창원 행정4 이하 총운영위)가 오는 4월11일 법정대중강당에서 열린다.

총운영위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대의원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총여학생회장, 8개 단대 학생회장, 60개학과 학생회장 등 7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상사업으로 △4월=4.19 기념식 및 4.19정신 계승 달리기대회 또는 자전거대회 △5월=광주민주항쟁기념 초청강연 및 공연, 단대별 체육대회, 아라 대동놀이 △6월=지자체 선거를 맞아 학우들의 정치적 의식 고양을 위한 교양사업 △7월=학생회에 대한 이해 및 학생회 강화를 위한 단대별 여름학교.

▲학술사업으로 △4월=4.3 관련 강좌개설 및 유적지 순례 △5월=지방자치 학교 △6월=산학연계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

▲자료집 발간사업으로 △국내외 시사상황, 교양을 위한 도서관 배포용 '삼아탐' 제작

△칼럼 형식의 기관지 발간. ▲조직사업으로 △과학생회 활성화 위한 과내 분과·소모임에 대한 지원.

△문화사업으로 △공연 및 전시를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 △지역민들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 △민중가요 보급을 위한 노래패 활성화 △매달 문화의 주를 설정하여 작은 음악회 개최.

▲지역사업으로 △4월=4.3 민주항쟁 추모제, 유적지 순례 △5월=공정선거 감시단 구성, 지방자치 학교 개설, 하계농촌 봉사활동.

한편 총운영위에서는 ▲신설위원회(예비위원회·갈래연합·정보문화위원회·정치행정위원회) 인준 타당성 여부와 ▲한라산 교직원위원회 독립인준에 대해서도 심의하게 된다.

동연 사업계획 확정...맥택전회등에 방배정 지난 30일 열린 대표자 회의서

'95 동연대표자회의'가 동아리연합회(회장 송창원 농화학 4)주최로 지난 3월30일 백두

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69개 동아리중 50명(위원장 6)의 동아리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리연합회 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회칙개정소위원회 구성, 동아리분과배치, 동아리방 배정 등이 논의됐다.

이번 동연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보면 ▲일상사업=△사월제 행사 △제동원출발식 △새내기환영한마당 △아라해방제 △6월 탐라대학 △8월 탐라순례대행진 △9월 동아리대동제 △10월 임시대표자회의 등이다. 또한 ▲조직사업으로 △분과장 교양교육 △운영위원회의 △동아리간담회 ▲생활문화운동=△더불어 함께하는 문화형성 △같이 하는 놀이 문화형성 △생활문화소모임 △쓰레기분리수거 △생활환경터 개회로 전통생활문화 보급 및 참여공간마련 등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분과에 배치되지 않은 맥택전회, 농구부는 체육분과로, 한길사랑, 505대는 봉사분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되었으나 동아리방이 배치되지 않은 맥택전회, 505대, 농구부의 동아리방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동아리대표들은 회칙개정을 위해 회칙개정 발의를 하고 4월중으로 회칙개정 소위원회를 꾸려 회칙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대표자회의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논의했다.

대학발전기금 기탁현황

소속 및 지위	성명	기탁액(원)
공과대 교수	김재하	1,000,000
공과대 조교수	김희석	500,000
기성회 부회장	고태선	500,000
부산새벽청과시장대표	양태영	1,000,000
사무국장	유강하	1,000,000
소계 5건	5명	4,000,000
누계 333건	1036명	1,054,906,603

재단법인 제주대학교발전기금

(064)55-6201, 55-7202(이사장, 총장)
55-8561(상임이사, 기획연구실장)
54-2140~2(재단사무실, 기획담당관실)
FAX: 064-55-8562

홍진혁씨에 5년구형

지난 31일 제주지검

지난해 12월1일 우리대학교 교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검거된 홍진혁 전총학생회장(94년)이 지난 3월31일 5년을 구형받았다.

작년 한총련출발식 이후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을 받아왔던 홍씨는 이날 법정 최후 진술에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8천여명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정당한 기구"라며 "5.18, 12.12 사태의 주범은 처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5년을 구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창진 총동창회장장과 유승민 94년 부총학생회장 등은 제주지역 교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홍씨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으며 홍씨는 4월21일 재판을 받게 된다.

4·3문항상 발표

조미경 학우 시부문 가작

한라산 교직원위원회(위원장 김지선 사회3) 주최 제2회 4·3문항상 심사결과, 시부문에 조미경(독문2)학우의 '고사리'가 가작입상했다.

고찰 지난 3월29일자(522호)신문에서 △6면의 '전라남도통신동호회 찾아'라는 기사중 통신공학과 4학년 박기범학우를 정보공학과 4학년 박기범학우로 △7면의 '동연대표자 회의개회'기사중 50여개 동아리의 대표자를 70여개 동아리의 대표자로 △'교수동정'중 이광만(전자공학과)조교수를 부교수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부산지역 본교 발전후원회 발족 본도출신 각계 인사 50여명 참여 제주·서울 이어 세번째... 회장에 오이봉씨

우리대학교 부산지역 발전후원회가 지난 3월30일 본도출신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서라벌 호텔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발족식은 △교장권총장 인사 △김길정 부산도민회장 인사 △대학현황보고 △발족취지문 채택 △회칙제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임원선출을 실시해 후원회장에 오이봉씨(부산도민회

교문·(주)동진 대표이사), 부회장에 김길정 도민회장등 10명을 추대했다.

제주지역·서울지역 제주대학교 발전후원회 결성에 이어 세번째로 결성된 부산지역 발전후원회는 이날 발족취지문을 통해 우리대학교 발전기금조성 운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발전후원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오이봉 ▲부회장-김영일(전부산도민회장), 김길정(부산도민회장), 김명신((주)대림화학대표), 이근보(한국도선사회 부산지사도선사), 정순택(부산지역제주대학교동창회장), 한권이(제민일보 부산지사장), 신병식(한국 퍼YBS 판매대표), 양순화(광양가족상담관 대표), 이봉택((주)서양대표이사), 안택진(세계화학공업사 대표).



◇우리대학교 부산지역발전후원회가 지난 3월30일 부산 서라벌호텔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제총협 대의원대회 7~8일 개최 상임의장 선출...상반기 사업계획 논의

제7기 제주지역 총학생회 협의회(임시 상임의장 이필승 제주전문대학 총학생회장 이하 제총협)에서는 오는 4월7~8일 양일간 제주전문대학 시청각실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상임의장 선출 및 상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각 대학 총학생회장·부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10인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는 우리대학교·제

주교육대학교·한라전문대학·제주전문대학 등 도내 4개대학 대의원 56명이 참가해 △4월=4.19계승대회(4월19일) △5월=제7기 제총협 출범식(5월2일~3일), 한총련 출범식(5월5일~7일) △6월=농촌 봉사활동(6월2일~6일), 한총련 통일선언대회(6월3일) △8월=탐라순례대행진(8월초~중순), 통일민족대회(8월15일) 등 제총협 상반기 사업계획을 논의케 된다.

제5대 평의원회 의장단 선출

의장에 김항원교수·부의장에 소인섭교수



김항원(사회교육과)교수가 지난 3월29일 오후 2시부터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평의원회에서 제5대 평의원회 의장에, 소인섭(원예학과)교수가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지난 29일 선출된 제5대 평의원회 의장단은 오는 96년 3월27일까지 2년간 그 직책을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 평의원회 임원은 4월중순에 열리는 제2차 평의원회에서 선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김항원 평의원회 의장과 소인섭 평의원회 부의장의 주요약력은 다음과 같다.

▲김항원 의장(사진 왼쪽)=서울대학교 일반사회학과 졸

업(65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 석사(77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취득(90년) △우리대학 전임강사(80년) △교수승진(92년) △제대신문사 주간(86~87년) △통일안보연구소장(87년) △동아시아 연구소장(92~94년) △총장직무추천위원회 위원(93년)

▲소인섭 부의장은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원예학과 졸업(71년)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원(원예학) 박사학위 취득(83년) △우리대학 전임강사(83년) △교수승진(94년) △원예학과장(87년) △제대신문사 편집위원(94년) △최고농업경

김윤보 학우 추락사

병문전 복개 공사장서

김윤보(독문 4)학우가 지난 3월29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 라온다호텔 앞 병문전 복개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김학우는 29일 새벽 3시30분경에 음주상태로 귀가하던 중 센스등의 안전구조를 설치해 부실한 병문전복개공사장을 지나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학우의 부친은 "병양측이 센스 등의 안전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생겼다."며 "병양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국제금융시대 — 누가 그 침범이 될 것인가?

보험에서 국제금융서비스까지 국제화를 선도하는 삼성생명 — 국내최대의 금융회사로서 금융개방의 물결에 당당히 맞서 21세기의 국제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글쎄... 말 그대로 보험회사였지 뭐?"
"크다도 해도 어디 은행만 하겠어?"
이렇듯 알려진 부분보다 가려진 부분이 더 많은 삼성생명 — 하지만 8년 연속 금융업계 매출 1위, 국내최대의 기관투자자, 세계 각지의 현지법인을 통한 다양한 투자자산에 이르기까지, 삼성생명의 가려진 부분은 알려진 부분보다 훨씬 큼니다. 국내 최대의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개방의 물결에 당당히 맞서는 삼성생명 — 21세기 국제금융전문가의 꿈을 이제 이곳에서 키워 보십시오.



취업정보문의 광주총국 총무과
(062)230-5900~1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영화평 '쇼생크 탈출'—그 완벽성 유도의 실수

철저히 포장된 인위적 감동 어색하게 연출

1. 들어가면서

프랑크 다라본트 감독의 쇼생크는 무척이나 포장되어 있다. 유도된 웃음, 인위적 감동의 조작까지 철저하게 포장되었다.

이 영화는 은행원인 앤디(팀 로빈스 역)가 살인 누명을 입어 쇼생크 감옥에 들어가 그가 감금된 상황에서 자유를 느끼려는 의지적 노력을 하면서 동료 죄수인 레드(모건 프리먼 역)와 우정을 쌓으면서 점차 무기력한 감옥안에서의 다른 죄수들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 넣게 되고, 마치 파워 오브 원에서 '백인' P.K.가 '흑인들'의 영웅 레이메이커가 되듯이, 앤디가 그들의 영웅으로 추앙되다가 절대 권력으로부터의 치밀히 계획된 탈출과정을 반전효과와 재미와 함께 담는다.

2. 감금, 권력관계 표현의 미흡과 게으른 본질 탐구 작업

영화에서의 교도소는 많은 은유적 의미를 내포한다.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구속을 주는 현실이라 볼 수도 있고 미셀 푸코가 말하는 지식과 권력이 밀착되어 절대 권력이 창출되는 체제일 수도 있다. 주된 플롯들은 그러한 교도소 안의 여러 모습들로 담겨진다. 감금된 상황하에서의 수직적 권력 구조와 교도소 소장이라는 '절대 권력'이 앤디의 '지식'을 이용해 철저히 죄수들을 자기 권력에 두고,

그 안에서 일방적인 폭력이 자행되며, 브룩스를 통해 '길들여지는 처참함'을 보여주고, 앤디를 통해 의지를 지닌 한 인간이 살아감의 의미와 희망을 가진 삶이 절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그 뚜렷한 표현이 부족하다.

어떤 이는 이 영화를 '빠빠용'에 버금가는 인간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영화라 한다. 아니다. 이영화에서는 빠빠용처럼 삶의 의지에 대한 처절함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기껏해야 독방신세와 호모들에게 원치 않는 짓거리를 당하는 것 뿐이고 대부분 대사의 미사여구를 통한 상징으로서만 그것을 보여줄 뿐이다. 또한 알란 파커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처럼 감금된 상황하에서의 끔찍한 권력의 야만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다. 그저 간수장 해럴리의 단순무식한 폭력과 성경의 '나는 세상의 빛이 나...'하는 등의 구절을 인용해 절대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3. 변질된 휴머니즘과 유도된 웃음

교도소 생활 도중 앤디와 레드 가 쌓아가는 우정의 형태는 상당히 기형적인 것이다. 빠빠용에서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극중 인물의 이름이 기억이 안나기에 역할을 담당했던 배우의 이름을 씬)이 나누었던 우정은 상호교환 작용을 거친 평등선상에서의



◇ 사진은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

우정이었지만 쇼생크에서의 우정은 앤디가 우위를 점하며 레드를 비롯해 동료죄수들에게 앤디의 '배품'이 하달되는 수직선상의 우정인 것이다. 앤디가 동료들에게 맥주를 나누어주고 도서관을 지어 동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과거로의 결혼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끝장면에 빠빠용에서는 호프만과 맥킨이 우정의 평등한 상호호응을 통해 호프만은 스티브에게 잘가라는 인사말과 함께 그대로 섬에 남기를 택하고 스티브 또한 함께 탈출을 강요하지 않고 홀로 떠나는 것으로 끝난 반면 쇼생크에서는 앤디의 일방적인 메시지만

'나는 조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레드에게 남기며 레드와 앤디의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도록 찾아가는 어느 정도 앤디에 의해 강요되는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다.

영화의 흐름에 있어 중간 중간의 코믹적 요소는 헐리웃의 대표적 전술인 웃음조작을 보여준다. '이때 찍으면 보는 너희들은 웃어라'하는 식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웃음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 물론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그럴 수는 있었지만 조금은 농락당한 기분이 든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잔혹한 웃음을 자아내지는 못하고 의

미없는 웃음을 유도해낸 조작은 영화의 대중성을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관객들을 농락한 측면이 많은 것이다.

4. 나오면서—완벽성의 실수

당신은 앤디를 보면서 섬뚱한 기분이 안들었는가! 감방에 들어가면서부터 몇십년에 걸친 치밀한 탈출계획,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귄 친구인 레드조차도 속였던 그의 철저한 감추행위, 신이 아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치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아하게 생각된다.

프랑크 다라본트가 완벽성을 유도한 것은 실수였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대개 그 여운을 관객들에게 남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인상만을 남기는 것처럼 그의 완벽성 유도는 실패였던 것이다. 팩키지 투어가 출발에서 도착까지 여행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구경하며 즐겨야 하는 것이라면 이 영화는 팩키지 영화인 것이다. 마치 아주 예쁘고 맛있는 케익을 먹고난 후에 이빨을 닦아버리면 그 케익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극장안에서 나의 유도된 감동은 극장을 나오면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제 그 영화는 그저 재미있고 좋았던 영화일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나는 아주 예쁘고 맛있게 보이는 상가운 케익을 먹었던 것이다. 이철민 (국문고 4)

동물발언대 모교도서관의 현실

향토자료실등 소장자료 빈약

어떻게 지역발전 선도하려는지



김순자

낮선 곳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을 찾아가는 일이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도서와 자료를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바깥에 가면, 대학도서관에는 그 지역에 관한 모든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 야 한다는 뜻과 같다.

제주 유일의 종합대학이자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제주대학교의 도서관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는 대학당국이나 교수·학생 등이 대학의 위상과 발전을 논하기 위해 앞서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즉 '대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1년에 대학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장서는 몇권이며, 향토자료 구입비로 지출되는 도서구입비는 얼마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필자는 제주대학교가 모교인 덕분에 제주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을 자주 이용

하는 편이다. 내가 주로 이용하는 곳은 도서관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향토자료실'이다. 자료가 아쉬워 찾아가는 하지만 빈약한 자료와 마주할 때는 '안타까움'보다는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명색이 대학도서관 향토자료실인데,

언필칭 대학의 위상은 그 지역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제주의 발전은 곧 대학의 발전이고, 대학의 발전은 제주의 발전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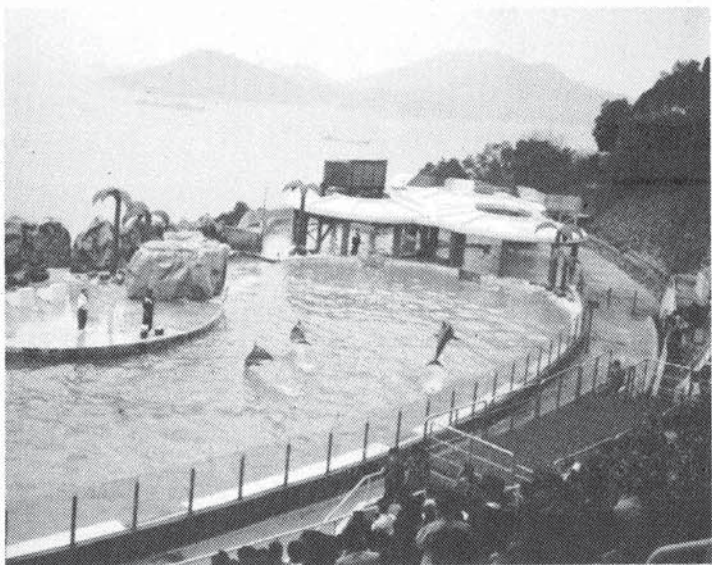
케빈지 모리지만, 요즘 세간에서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세계화로 나아가려면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하고, 지역대학이 발전하려면 대학도서관의 향토자료실을 튼실하게 꾸려야 한다'는 의미와 통하지 않을까.

물론 대학도서관에는 인문·사회·문화·자연 등에 대한 장서 구비가 천재되어 한다. 대학도서관의 평가는 대학 당국과 교수·학생들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학구성원 모두의 '도서관 사랑'과 '치열한 연구정신'을 기대해 본다.

또한 제주대학교의 발전은 대학 관계자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모두가 함께 짊어져 나가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88년 국문학과 졸업·제민일보기자)

동남아여행기② 문화자원 활용한 관광객 유치 노력 본받을만



◇ 홍콩의 해양공원은 중문 마린파크와 달리 실외에서 바다를 보며 돌고래쇼를 볼 수 있도록 설치했다.

다음에 도착한 나라는 홍콩. 97년 주권을 중국에 반환해야 하는

나라 홍콩. 홍콩은 동양의 뉴욕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높은 고층건

물 등 아찔을 관광상품화한 나라 홍콩. 관광 유람선에서 저녁을 들며 야경을 바라보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이었다. 이곳에서는 백만불 야경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했다. 배안의 관광객은 거의 한국인 관광객이었다. 배안에서의 디스코타임, 서로 모르는 관광객이지만 한국인이라는 하나만으로 손에 손을 잡고 정수라노래 "아! 대한민국"을 힘차게 부를 수 있었다. 역시 우리 한민족은 다른 나라보다 독특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홍콩 해양공원, 돌고래 쇼 등 중문마린파크와 비슷했는데 다른 점은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바다를 보며 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공원의 독특함은 해양공원을 올라가는 장치가 에스컬레이트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을 깎아서 에스컬레이트로 올라가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독특했다.

해양공원내에는 돌고래 박물관과 중국의 역사를 시대별로 보여주는 건물이 있었다. 그리고 홍콩의 시장 87%를 지배하는 일본의 정점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홍콩대학을 방문했다. 우선 도서관을 가고 싶었다. 도서관 입구에 있는 아저씨에게 한국 제주대학교에서 왔고 도서관을 보고 싶다고 영어로 얘기를 했다. 아저씨는 아무말도 없이 담당자를 불러주고 수화기를 주는 것이다. 순간 겁도나고 그만 돌아갈까도 했지만 한국대학생을 우습게 볼 것 같아서 전화기를 잡고 설명했다. 결과는 OK. 학생증을 보여주고 사진기를 맡기고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도서관은 최신식이었다. 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리포트를 쓰고 있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니 반갑

기도 했지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새삼 느꼈다. 도서관에 한국에 대한 자료는 고작 사전 3~4개 정도였다.

도서관시설은 학생들 우선절까지 소중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7박8일간 4개 나라를 본다는 것은 어쩌면 수박겉핥기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선 가장 중요시 느꼈던 것은 틈틈히 익혔던 영어가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필수라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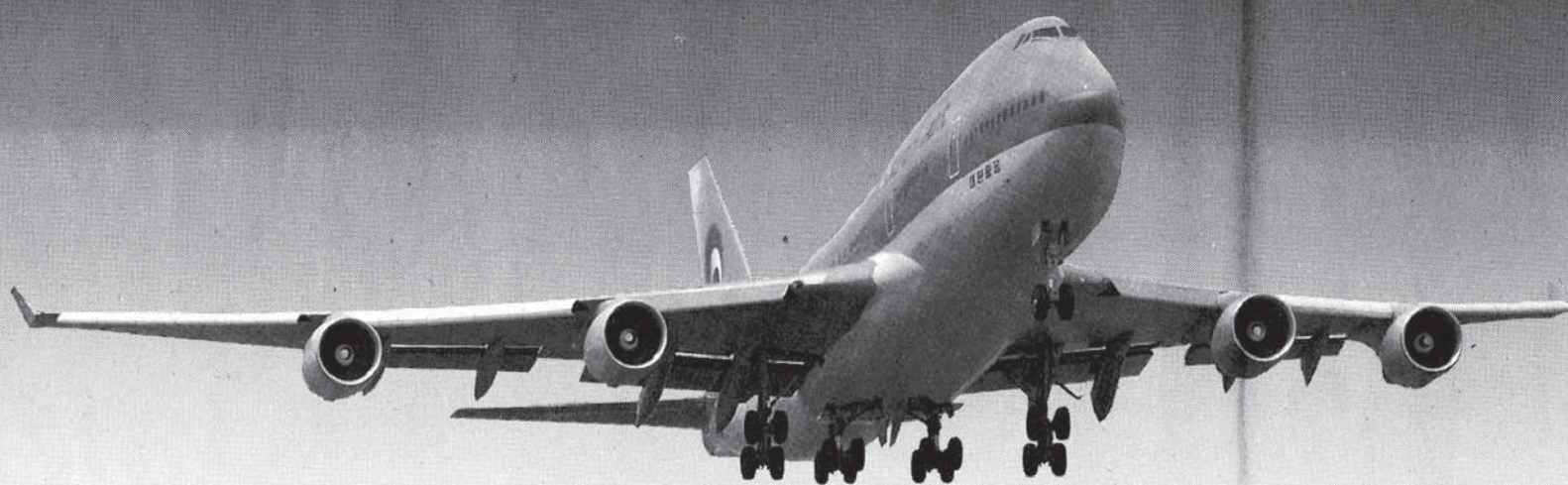
두번째는 세계는 가깝고 서로 동화되고 있다고 느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특한 문화 등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인간미, 돌, 해녀, 한라산, 사면에 갖고 있는 바다, 깨끗함, 독특한 언어, 초가집 등 외국인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비함이라고 생각한다.

새로 나온 책

『아름다운 사람』-김상수 장편소설



본격적인 미디어 소설인 『아름다운 사람』은 독특한 소재, 속도감 있는 시간적 문체로 기존의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움을 느끼게 한다. 극작가이며 연출가인 저자는 '문화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소설쓰기와 '숨겨진'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예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화두로서 '아름다운 사람'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다. (보성사펴냄, 6천5백원)



SKYPASS

BK 500 8039 7

HAN KWI AE

KOREAN AIR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무료항공 여행의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SKYPASS)는 탑승거리 누적에 따라 무료항공권 등의 혜택을 드리는 상용고객우대제도다. 국내선 구간 10번 왕복(20회) 탑승하시면 국내선 항공권 왕복 1매를 발급해 드립니다. 특히, 자주 항공여행을 하시는 제주대학교 학생여러분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분이 가입하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탑승거리에 따라 무료여행 등의 혜택을 드리는 상용고객우대제도(FTB)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문의: (064) 52-2000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